



3면

전북형 기업지원 3대 핵심전략 본격 추진

전주매일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음 4월 11일) 제37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재명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북서 '경청 투어' 이어가
진안·전주·익산 등 방문
농촌·노인·문화계와 소통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주 완산구 풍남문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에 있는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심을 듣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6~7일 전북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갔다.

지난 6일 장수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한 이 후보는 7일 오전에는 진안 인삼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임실을 거쳐 전주와 익산으로 이동했다.

먼저, 진안 인삼시장에서 이 후보는 농촌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회계를 강조하며 “농촌 기본소득 지급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면 가능한 일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쓰는 것이 왜 퍼주기가 되냐”라며 비판적 시각을 반박하기도 했다.

균형 발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중앙에만 집중된 성장으로는 국가 발전이 어려우며, 지방에 대한 특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갑대중 전 대통령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쳐라’라고 말했었다”며 이전 오로지 국민 행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을 진짜 만들자. 행동하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죽지 않고 죽음을 다해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실 전통시장을 찾은 이 후보는

“국민을 대신해 이 세상을 이끌 정치인을 잘 뽑지 못하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하는 공직자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임실 전통시장에서는 지지자들이 “검사 탄핵”을 부르짖었고, ‘내란종식 사법쿠데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팻말도 보였다.

전주에서는 전주 국제영화제에 참여 중인 영화감독, 작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K-콘텐츠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문화는 국

민 일자리를 위한 하나의 산업으로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다”라며 “문화 영역에 대한 인재도 키우고, 작가 학교도 하나 만드는 걸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문화 산업이 (일자리) 3대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후에는 익산으로 이동해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 들러 노인회 임원들을 만나 ‘노인 복지와 정책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를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장수군 천천면 오목마을을 방문해 전국 최연소 이장인 정민수씨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 농촌 활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이 후보는 마을에서 1박을 하며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일정을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한다는 발표에 민주당에서는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만호 기자



제52회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시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을 직접 찾아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일상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8일은 어버이날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김관영 도지사, 도내 취약 어르신 가정 방문

감사·위로 전해… 주거 등 생활 여건 살피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 보낼 수 있도록 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취약노인 가정을 직접 찾아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외롭게 지내는 독거 어르신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위로하고, 존중받는 노후가 보장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시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과 국가유공자 어르신 가정을 잇달아 찾아 정성껏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장에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돌봄 서비스 수급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일상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경청하는 시

간도 가졌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줘서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도는 단순한 위문 방문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지역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도의 책무”라며, “돌봄 사각지대 없이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은 신속히 마련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연구원, “기본사회, 농촌지역부터 실현해 나가야”

이슈브리핑 통해 농민 공익수당·농촌 기본소득·농촌 생활돌봄 등 3대 전략 제안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농촌지역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핵심전략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 ‘농촌기본사회 실

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농촌기본사회 실현,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분야·세대·계층·지역을 종합할 때, ‘기본사회’ 시작은 ‘농촌지역’이

우선이라 밝혔다. ‘산업화·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곳, 균형발전과 멀어진 가장 아픈 곳, 불리함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곳’.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곳인 ‘농촌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농민 공익수당 △농촌 기본소득 △농촌 생활돌봄을 제안하였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민주연구원과 ‘농촌기본소득 연구협약’을 맺고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 정책을 기획해 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이제 임실

2025 임실 방문의 해
Visit Imsil year

임실N치즈축제



육정호 전경



육정호 출렁다리



임실산타축제

